

손수레가 멈추는 자리에서



국민일보

김동규 기자



고물상이 누군가에게 하루를 버티는 작은 정류장이 될 수 있으리라 누가 생각했을까.

지난 3월10일이었다. 입춘이 지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기온은 영하를 가리켰다. 코끝이 시린 오전 9시, 취재를 약속했던 장소에 도착했다. 아직 햇볕이 골목 안쪽까지 다 들어오지 않은 시간, 리어카를 끌고 온 어르신들이 하나둘 고물상 입구에 멈춰 섰다. 종이와 캔, 고철이 뒤섞인 수레는 어르신들의 허리만큼이나 오래되고 무거워 보였다.

그때 한 남성이 자연스럽게 다가갔다. 그는 말보다 손이 먼저였다. 리어카 손잡이를 대신 잡고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짐을 내려놓고, 무게를 재고, 다시 어르신에게 다가갔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찢과자가 들려 있었다. “차 한 잔 하세요.” 별다른 설명은 없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날 그곳에서 내가 들은 그 어떤 말보

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차를 건넨 이는 징검다리밥상공동체 대표 장순엽 목사였다. 하지만 현장에서 그는 자신이 목회자라는 사실을 굳이 앞세우지 않았다. 주일 사역을 마친 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는 강동구 일대 고물상을 돌며 폐지와 고철을 모으는 어르신들을 만난다고 했다. 금요일에는 독거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 안부를 확인한다. 교회 강단이 아니라 고물상 입구와 시장 골목, 임대아파트 복도가 그의 일터가 된 셈이었다.

취재를 위해 질문을 던지던 중에도 그의 시선은 자주 나를 비껴갔다. 말을 하다 말고 새로 들어오는 어르신을 보면 곧장 다가갔다. 리어카를 끌어주고, 차를 건네고,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물었다. 기자 입장에서는 인터뷰 흐름이 끊기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끊김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끊김 속

에서 이 만남의 본질이 보였다. 그는 나에게 설명하기보다, 자신이 매일 해오던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김홍자 할머니는 여든 여덟이었다. 그는 “받기만 해서 늘 미안하다”고 말했다. 몸이 아파 힘든데도 이곳에 오면 기분이 좋아진다고도 했다. 얼마 전 의자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했다. 그런데도 새벽부터 폐지를 모아 고물상에 왔다. 그렇게 하루 종일 움직여 손에 쥐는 돈은 2000원 남짓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받아 적다가 잠시 기록을 멈췄다. 2000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작아서였을까. 아니 오히려 크게 다가왔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았다. 누군가에게는 커피 한 잔 값도 되지 않는 돈이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노동이었고, 몸이 아파도 멈출 수 없는 생계였다. 그 앞에서 기자가 쓸 수 있는 문장은 자꾸만 가벼워졌다.

장 목사는 자신을 ‘잠깐 머무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래서 고물상 사장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다. 자신은 잠시 왔다 가지만, 사장들은 어르신들을 매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보통 취재 현장



서울 강동구 한 고물상 앞에서 어르신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장 목사.



한 어르신이 지난 3월10일 서울 강동구 한 고물상 앞에서 차를 마시며 장순엽 목사와 대화하고 있다.



장순엽 목사가 고물상 앞에서 어르신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있다.



장순엽 목사가 강동구 한 고물상 앞에서 한 어르신의 리어카를 대신 끌고 가고 있다.

에서 우리는 주인공을 찾는다. 누가 이 일을 시작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를 묻는다. 그런데 장 목사는 자신이 중심이 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잠깐 머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의 사역이 가벼운 것은 아니었다. 그가 만나는 어르신들은 많을 때 한 주에 150명을 넘는다고 했다. 강동구 고물상을 오가는 단골 어르신만 300~400명에 이른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건네는 것은 거창한 복지 서비스가 아니었다. 차 한 잔, 과자 한 봉지, 짧은 안부, 그리고 “잘 지내셨어요”라는 말이었다.

처음에는 나도 마음 한편으로 비슷한 질문을 품고 있었다. 이것은 목회일까, 복지일까. 교회 밖에서 차를 나누고 짐을 들어주는 일을 목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 장 목사는 그런 질문을 이미 수없이 받아온 듯했다. 그는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게 사회복지지, 그게 목회냐”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분명했다. “저의 정체성은 목사입니다.”

그는 험한 삶을 살아온 어르신들일수록 종교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했다. 그래서 더 먼저 다가가야 한다고 했다. 설교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지는 않지만,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사랑이 꼭 마이크를 타고 선포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어떤 날 복음은 고물상 입구에서 건네는 따뜻한 종이컵의 온도로 전해질 수도 있었다.

취재 중 장 목사가 들려준 이야기들은 밝은 장면보다 아픈 장면이 많았다. 리어카를 끌다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입은 어르신,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고 2주 만에 세상을 떠난 이, 여름철 물 한 병을 찾았다가 며칠 뒤 당뇨 합병증으로 숨진 60대 여성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늘 찾아가던 어르신이 보이지 않아 문을 두드렸고, 결국 소방관·경찰관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간 일도 있었다. 그 어르신은 화장실에서 넘어진 뒤 고관절이 부러진 채 사흘을 버티고 있었다.

“계속 보던 분을 갑자기 못 보게 되는 게 제일 마음에 납니다.” 그의 말끝이 흐려졌다. 나는 그 문장을 수첩에 적으며, 이 일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누군가를 계속 본다는 것은 책임이 생긴다는 뜻이었다. 어제 보이던 사람이 오늘 보이지 않을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관계가 된다는 뜻이었다. 그 관계가 때로는 생명을 살리고, 때로는 마지막을 기억하게 한다.

기자는 현장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대개 몇 시간 머물고, 몇 사람을 만나고, 문

장을 정리한 뒤 다음 현장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취재는 늘 미안함을 남긴다. 누군가의 삶을 잠시 들여다보고, 그 삶의 일부를 기사라는 형식으로 옮긴 뒤,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고물상 앞에 몇 시간 서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곳의 어르신들은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같은 길을 걸어 나올 것이었다. 장 목사도 다시 그 자리에서 있을 것이었다.

그날 내가 본 것은 거창한 목사의 일과가 아니었다. 고물상 앞에 잠시 놓인 의자, 따뜻한 차 한 잔, 쌀과자 한 봉지, 그리고 어르신들의 굳은 얼굴이 조금씩 풀리는 순간이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사소해서 기사 한 문장으로 지나갈 장면이었지만, 그곳에서는 그 사소함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나는 장 목사가 한 말을 다시 떠올렸다. 어르신들은 대화할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다. 집에도 혼자 있고, 폐지를 주우러 다닐 때도 혼자이고, 하루 종일 말을 못 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래서 “잘 지내셨어요”라는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된다고 했다.

기자로 살다 보면 말의 무게를 자주 생각하게 된다. 어떤 말은 사람을 다치게

국민일보

2026년 9월 20일 금요일 033면 마신 31.6 x 21.6m

“차 한잔 하세요” 고단한 리어카 삶 보듬는 ‘거리 전도자’

거리의 목회, 사회선교사
글 씀은 손서

(상) 고물상 앞에 선 목회
(하) 농촌 환경으로의 선교

서울 강동구의 한 재활용품 수집소 앞. 일명 고물상으로 불리는 이곳에 리어카를 끌고 아침 공기를 가르며 노인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종이와 캔이 뒤섞인 손수레를 입구에 내려놓은 순간, 한 남성이 다가와 리어카를 대신 끌어주며 안쪽으로 밀어 넣는 것을 도왔다. “차 한잔 하세요.” 온기가 담긴 종이컵과 쌀과자를 건네며 짧은 인사와 함께 안부가 오갔다.

이곳에서 장검다리법상공동체 대표 장순엽(46) 목사는 굳이 자신이 목회자임을 밝히지 않는다. 주일 사역을 마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목사는 그저 묵묵히 어르신들 곁을 지키는 사람으로 머문다. 리어카를 밀어주고 두꺼운 장을 나르며 틈틈이 말을 건넨다.

장순엽 목사, 고물 수집하는 어르신 찾아 일 도우며 돌보며 주중엔 어김없이 고물상 순회 독거 어르신 가정 일일이 방문도 노동 환경 평화 등 사회 현장서 사회선교사, 사역 사각지대 배워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여왕이요 새콤바퀴였다라고요.” 짧은 대화기 오가며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최근 인터뷰를 진행하는 중에도 장 목사의 시선은 계속 노인들을 향했다. 새로



들어오는 어르신이 보이면 말을 멈추고 먼저 다가간다. 오전에만 10명 넘는 어르신들 맞이하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차와 간식을 건넨다. 고물상 안은 잠시 쉬어가는 안식처가 된다.

김종자(88) 할머니는 “받기만 해서 늘 미안하다”며 “요즘 몸이 아파 힘든데도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의자 위에 올라가다가 떨어져 갈비뼈에 금이 갔지만, 새벽부터 폐지



장검다리법상공동체 대표 장순엽 목사가 최근 서울 강동구 한 재활용품 수집소에서 어르신들의 리어카를 대신 끌고 있다. 왼쪽 사진은 어르신께 간식과 물을 앞에 선 장 목사.

를 모아야 하기에 이곳을 찾는다. 그렇다. 그럼에도 “따뜻한 차 한잔이 큰 힘이 된다”고 했다.

하고, 어떤 말은 사건을 설명하고, 어떤 말은 세상의 어두운 곳을 드러낸다. 그런데 그날 고물상 앞에서 본 말은 조금 달랐다. 그것은 설명하거나 폭로하는 말이 아니라, 곁에 머물기 위해 건네는 말이었다.

“차 한 잔 하세요.” 그 짧은 말이 손수레를 멈추게 했다. 굽은 허리를 잠시 펴게 했다. 아무도 묻지 않았던 안부를 물게 했다. 때로 기자가 보아야 할 것은 세상을 흔드는 장면이 아니라, 세상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이어지는 한 사람의 손길일지도 모른다.

고물상 앞에서 손수레가 멈추는 시간. 그곳에는 가난과 노년, 고립과 노동이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차 한 잔의 온기와 이름을 불러주는 관계도 있었다. 장 목사는 자신을 장검다리라고 했다. 도움을 주

고 싶은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있고, 지역 교회와 어르신을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한 사람의 삶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날 이후 내게 고물상은 더 이상 폐지와 고철이 모이는 곳만은 아니었다. 누군가의 하루가 잠시 쉬어 가는 곳, 누군가의 안부가 확인되는 곳, 그리고 복음이 말보다 먼저 손으로 전해지는 곳이었다.

기자로서 내가 그곳에서 본 것은 ‘큰 뉴스’가 아니었다. 하지만 오래 마음에 남은 것은 바로 그런 장면이었다. 세상이 쉽게 지나치는 자리에서, 누군가는 오늘날도 묵묵히 손수레를 밀고 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손수레 옆에서 말없이 함께 걷고 있다. 🙏

국민일보 김동규 기자